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MA CGM books raft of LNG-fuelled ice-class feederships for Baltic trading

현대미포조선이 CMA CGM과 2,000TEU급 컨테이너선 10척 건조계약을 체결함. 계약규모는 총 6.28억달러규모이며 인도기한은 2024년 하반기임. (Tradewinds)

EU, 현대-대우 기업결합 심사 재개

유럽연합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함. 심사기한은 2022년 1월 20일까지임. (선박뉴스)

중고 탱커 매물 증가

지난 10월 중 거래된 중고 탱커는 43척으로 9월보다 +34%, 지난해 10월보다는 +26% 증가함. 운임상승에 기인함. 운임이 개선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해체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짐. (선박뉴스)

'Point that we will do something is getting closer,' Dynagas LNG Partners says

LNG선 선주 Dynagas LNG Partners의 선대 확장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함. 현재 6척을 보유하고 있음. 최근 3개월 선대 가동률은 100%라고 보도됨. (Tradewinds)

US releases crude from Strategic Petroleum Reserve

미국이 치솟는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12월 중하순부터 전략 비축유 5,000만 배럴을 방출 예정임. 방출은 대여·판매 형태로 진행되며,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영국 등도 동참할 것으로 발표함. 당장 유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보도됨. (Upstream)

한화시스템, 방위사업청과 594억 규모 용역계약

한화시스템이 방위사업청과 군사정보체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함. 계약규모는 594억원이고, 2024년 12월 16일까지 임. (헤럴드경제)